최근 국내외 EMP 시장 현황

□ 최근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ETF 시장의 발전, ETF를 활용한 자산배분 수요 증가, 글로벌 자산운용업계 전반의 보수인하에 따른 수익성 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EMP(ETF Managed Portfolio)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EMP는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ETF, ETN 등의 ETP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ETF의 저비용, 투명성, 거래 편의성 등의 이점 등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

□ 국내 펀드시장에서도 ETF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저금리와 고령화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 및 자산배분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관심이 증가

□ **EMP(ETF Managed Portfolio)는 고객별 위험선호도, 투자대상 지역, 자산군 등을 고려하여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ETF, ETN 등의 ETP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의미**

— 일반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와 비교하여 EMP는 저비용, 투명성, 거래소를 통한 거래 편의성 등 ETF의 이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현 및 리밸런싱에 유리한 전략

— EMP는 2011년 9월부터 미국의 펀드평가사인 Morningstar에서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로 따로 분류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니버스(universe), 자산군(asset breadth), 포트폴리오 전략(portfolio implementation), ETF 유형(primary ETF exposure type) 등 크게 4가지 기준과 각각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EMP 전략을 분류함[1)]

  • 유니버스는 투자지역, 자산군은 투자대상의 주요 자산범위, 포트폴리오 전략은 자산배분 전략, ETF 유형은 편입되는 ETF의 주요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음

— 2018년 3월말 기준 전략별 비중에 따르면, Global All Asset 전략이 미국 EMP 시장규모의 3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Global Balanced 25.4%, Global Equity 22.7% 등의 순으로 나타나 ETF를 활용한 글로벌 자산배분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Morningstar는 분기별 EMP 시장동향(Morningstar ETF Managed Portfolios Landscape Report)을 집계하여 발표

EMP 분류기준

유니버스	자산군	포트폴리오 전략	ETF 유형
Global	All Asset	Hybrid	Broad Market
International	Alternative	Strategic	Sector
United States	Balanced	Tactical	Country/Region
	Equity		All-Inclusive
	Fixed Income		

자료: Morningstar

분류기준(유니버스×자산군)별 미국 EMP 운용자산 비중

(단위: %)

	All Asset	Alternative	Balanced	Equity	Fixed Income	전체
Global	30.1	0.2	25.4	22.7	2.6	81.1
International	-	-	-	0.9	-	0.9
United States	0.2	1.5	7.7	6.8	1.8	18.0
전체	30.4	1.7	33.0	30.4	4.5	100.0

주 : 2018년 3월말 기준
자료: Morningstar

□ **최근 미국 및 유럽 EMP 시장의 성장세는 ETF 시장의 발전, ETF를 활용한 자산배분 수요 증가, 글로벌 자산운용업계 전반의 보수인하에 따른 수익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

— 미국의 EMP 운용자산 규모는 2018년 3월말 기준 1,219억달러로 2011년 9월말대비 263% 증가하였고 이는 2018년 6월말 기준 미국의 전체 ETF 시장규모(3.5조달러)[2]대비 3.5% 수준

— 최근 미국 펀드시장에서는 ETF로 대표되는 패시브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순유입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양적 성장에 힘입어 ETF를 활용한 자산관리 및 자산배분 전략의 발전으로 ETF 생태계가 진화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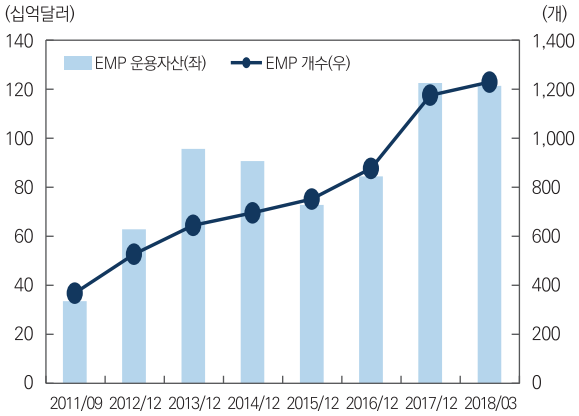
- 글로벌 ETP 시장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7월말 기준 운용자산 규모가 5조달러를 넘어서는 등 높은 성장률 지속

— Vanguard를 대표로 하는 주요 ETF 운용사들은 현저히 낮은 보수 수준을 내세워 글로벌 자산운용업계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EMP 비즈니스 등을 통한 자문수수료 확대를 통해 수익성 제고

- 일반적으로 EMP를 비롯한 ETF 포트폴리오 상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자문사를 ETF Strategist라고 지칭하며 운용사가 직접 자사 ETF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상품을 개발하거나 자회사로 ETF Strategist를 설립하기도 함
- 미국의 경우 2018년 3월말 기준 189개사에서 EMP를 제공하고 있으며, Vanguard, Charles Schwab, BlackRock이 각각 127억달러, 120억달러, 87억달러의 EMP 운용자산 규모를 기록하여 Top3 ETF 자문사에 해당

2) www.ici.org/research/stats/etf/etfs_06_18

미국 EMP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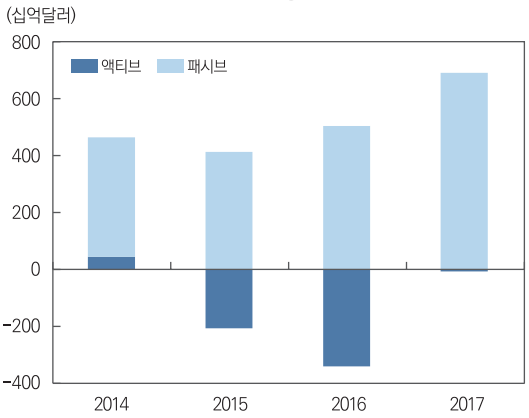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미국 EMP 자문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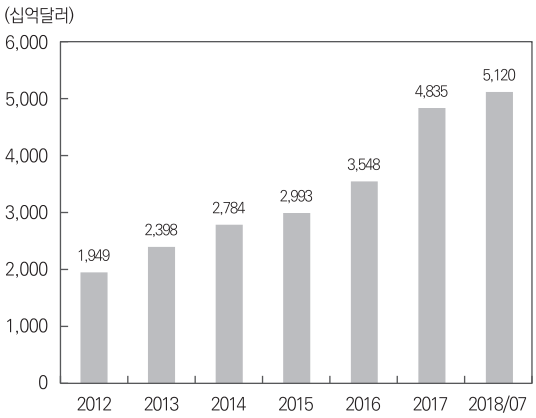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미국 펀드시장 자금흐름



자료: Morningstar

글로벌 ETP 순자산 규모



자료: ETFGI

□ **국내 펀드시장에서도 ETF 시장의 성장과 함께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EMP 상품의 출시가 최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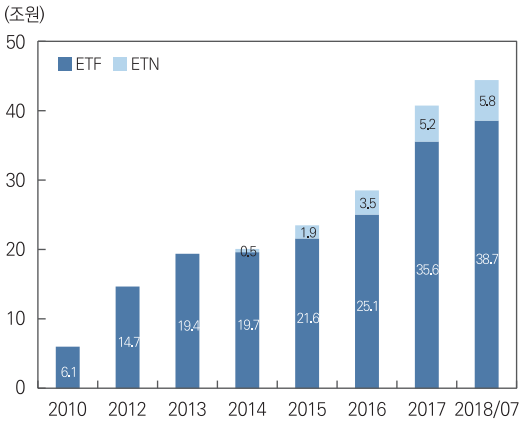
— 국내 ETF 시장은 2018년 7월말 현재 상장종목 388개, 운용자산 규모 38.7조원(ETN: 상장종목 194개, 운용자산 5.8조원)으로 성장하여 규모,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

— 저금리와 고령화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 및 자산배분에 대한 투자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EMP 상품의 출시가 최근 잇따르고 있음

• 투자대상 다변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절실한 국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높은 투명성으로 투자목적에 맞는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EMP 투자가 유용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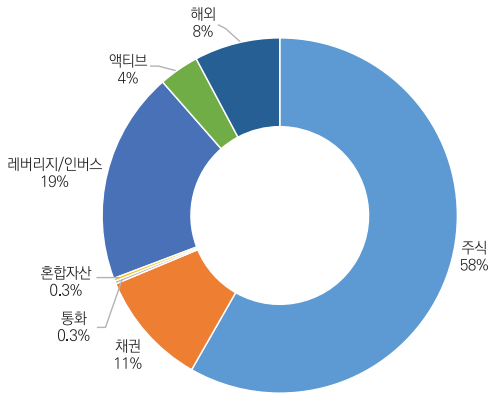
— 다만 포트폴리오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 적합한 포트폴리오 구현이 중요하므로 해외의 경우처럼 ETF 포트폴리오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는 ETF Strategist의 역할이 국내에서도 주목받게 될 것으로 전망

국내 ETP 시장규모



자료: 한국거래소

국내 ETF 상품유형별 자산 비중



자료: 한국거래소

선임연구원 심수연